

윤석열 '5·18-경제' 화두로 여권 텃밭 공략... 지지율 반등 '관심'

“광주의 한, 자유민주주의·경제번영으로 승화”

제한절 맞춰 전략 행보... 호남·탈진보 표심 자극

최근 지지율 하락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심장부 광주를 방문, 지지율 반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윤 전 검찰총장은 17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주일정을 소화하고 돌아갔다.

그는 5·18 정신의 계승과 광주·전남 경제를 화두로 표심을 자극했다. 윤 전 총장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키겠다”면서 “피를 흘린 역사와 선열들의 죽음을 아깝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광주 전남 지역이 고도 산업화와 풍요한 경제 성장의 기지가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전 총장은 광주 광산구 인공지능사관학교에서 AI산업 관

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의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광주가 경제 번영을 구가하는, 세계에 내놓아도 될 산업 금융도시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전남도는 중요한 전략적 농업 지역이다. 전남의 농업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 청년 세대가 귀향하고 고소득 스마트 농업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첫 광주 방문에서 나름대로 핵심 키워드를 고민한 흔적이 묻어 나고 있다.

5·18정신, ‘피흘린 역사’, 민주주의 등의 메시지는 그동안 우클릭 경향에서 나온 지지율 하락을 광주 방문을 계기로 호남, 중도 탈진보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 측면으로 보인다. 제한절에 맞춰진 일정도 5·18 정신 전문수료, 헌법수호 등과 연계돼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힌 대목도 호남의 아픈 곳을 경제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윤 전 총장의 광주 메시지가 호남과, 중도층을 자극해 지지율 반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선욱기자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사실을 둘러본 뒤 돌아가고 있다.

소병철 의원 “순천 지역 폭우피해 항구적 복구 위한 추경 편성 촉구”

전남철 의원들과 ‘폭우피해 복구 추경 촉구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8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 남해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전남철 의원들(이개호,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김원익, 김희재, 윤재갑, 서동용, 주철현)과 함께 공동개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순천 지역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지난 5일과 6일 쏟아진 폭우로 우리 순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순천지역은 도로침수 17건, 토사유출 및 사면유

실 55건, 농경지 침수 10건, 하우스 침수 3건, 수목전도 3건, 주택침수 및 파손 2건 등 총 90건의 피해 발생과 1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 의원은 “순천 지역은 지난해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올해 집중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 편성될 추경안에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남해안 지역과 순천 지역의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라남도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5일과 6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 남해안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상승세’ 이낙연, 호남서 지지율 역전...이재명측 ‘비상’ 대응 관심

최근 2개 여론조사서 앞서...전체 1위는 이재명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호남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돼 이 전 대표측이 한껏 고무되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정가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2일부터 14일 까지 실시한 차기 대통령직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26%, 윤석열 전 검찰 총장 20%,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전라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30%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 지사 27%, 윤 전 총장 4% 등의 순이었다. 최근까지 이 지사가 줄곧 호남권에서 이 전 대표를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2위가 바뀐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지사 27.2%, 윤 전 총장 26.8%, 이 전 대표 16.0%순이었으나 광주·전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34.4%, 이 지사 32.2%, 윤 전 총장 10.6%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39.0%, 이 전 대표가

26%였지만, 호남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37.7%, 이 지사가 36%였다.

올들어 상당수 호남권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앞섰지만, 가장 최근 두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표가 역전을 한 것이다.

앞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7월 12일~13일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호남은 이 지사 43.7%, 이 전 대표 28.1%였으며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0~12일 실시한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조사에서도 호남은 이 지사 40.9%, 이 전 대표가 32.7%로, 최근까지 대부분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앞섰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이후 여론조사 추이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권에서 최근 이 지사를 역전해 호남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보다는 전남에서는 변화가 많이 감지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비상이 걸린 이 지사측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윤취재본부김승호기자

이낙연 전 대표, 광양 옥룡사지 약수터 찾은 까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약수 마신 뒤 승승장구 대권 잡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광양 옥룡사지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남 광양 옥룡사지와 여수 수산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옥룡사지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얽힌 약수터가 유명한 곳으로 이 전 대표의 방문이 노 전 대통령

과 오버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선언 20여일전인 2001년 8월 13일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시절 광양지역 위원회 당원연수 차 광양을 방문해 옥룡사지 약수터에서 물을 마셨고 당 후보로 선출된 후 제16대 대통령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약수를 먹은 뒤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약수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일화의 함께 ‘소망의 샘’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약수를 들이킨 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옥룡사지를 찾은 것은 ‘옥룡사지 약수’를 마신 뒤 당시 ‘이인제 대세론’을 꺾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대권을 잡은 노 전 대통령을 뒤를 잇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광양=심승섭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